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 그들이 구속을 받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성역 초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계시될 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경험을 했다. 1823년 11월, 루시 맥 스미스와 조셉 스미스 일세의 장남인 엘빈 스미스가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엘빈은 25세였으며, 체력이 강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모친은 그를 “선한 성품을 지닌 훌륭한 청년”이라고 묘사했으며, 그의 “숭고함과 너그러움”은 “그가 살아 있는 때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했다.¹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 엘빈은 형제자매들을 불러모으고 그들 각자에게 말했다. 당시 거의 18세가 다 되고 아직 금판을 받기 전이었던 조셉에게 엘빈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청년이 되고 판을 받기 위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거라. 너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받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거라. 네 형 엘빈은 이제 너를 떠나야 하지만, 형이 네게 보여준 모범을 기억하여 너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라.”²

엘빈이 죽었을 때, 가족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장로교 목사에게 장례식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엘빈은 그 목사의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목사는 설교에서 엘빈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셉 스미스의 동생인 윌리엄 스미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 목사는] … 엘빈이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선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버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³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면서 옛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무와 특권을 보여 주셨으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1836년 1월, 앨빈이 사망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조셉 스미스는 해외 왕국에 대한 시현을 받았으며, 그 시현에서 앨빈이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그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임을 보았다. 조셉은 “주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모으시려고 그 손을 펴시기 전에 그가 이 생을 떠난 것과, 또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앨빈이] 받지 아니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떻게 그 왕국에서 기업을 얻었는지 기이히 여겼[다].”(교리와 성약 137:6) 주님의 음성이 조셉에게 임하여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같이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 받았더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해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또한 이제부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7~9)

1840년 8월 15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있었던 한 장례식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대해 가르쳤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이먼 베이커에 의하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간증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거의 다 읽었으며 “그 사도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는 당시에 그들 가운데서 그 의식이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제 사람들은 이 생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의 조건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⁴고 선언했다.

장례식에서 말씀을 한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선지자는 그의 아버지를 방문했는데, 아버지는 몹시 병약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선지자는 아버지와 함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교리를 토론했으며, 아버지 스미스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 앨빈을 향했다. 아버지 스미스는 앨빈을 위해 “즉시” 그 일을 하도록 부탁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는 앨빈을 보았다고 밝혔다.⁵ 1840년 후반에 스미스 가족은 하이럼이 그의 형 앨빈을 위해 침례 의식을 받았을 때 모두 기뻐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받은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스스로 현명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계획, 전능자의 [요건],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 세상을 떠난 영의 상태와 조건, 그리고 덕과 악에 대한 여러 견해에 따라 의와 죄를 행한 결과인 행복과 비참함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하며 상충된 견해를 보입니다. …

“… “인간들이 자비심 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 우주의 대 부모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온 인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분의 자녀로 보시고, 인간의 자녀들이 가진 편협한 감정을 갖지 않으시며,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 십니다.”(마태복음 5:45) 그분은 심판의 고삐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명한 입법자이시며, 인간의 편협하고 모순된 견해에 따라 심판하는 대신, ‘뭉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 행위들이 영국, 아메리카, 스페인, 터키, 혹은 인도 그 어디에서 행해졌든,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며, 율법 없이 산 사람들은 율법 없이 심판 받을 것이며,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와의 지혜와 예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를 그들의 공의와, 그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과, 그들이 정확한 지식을 얻게 하는 수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분의 숨겨진 계획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져, 미래의 장막이 견힐 때, 우리는 온 땅의 재판장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창세기 18:25 참조)”⁶

“하나님은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빛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십니다.”⁷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인간은 인자하신 창조주에게서 받은 모든 빛과 예지에 따라 그것이 많은 적든 그것에 의해 공의롭게 심판받을 것이기에, … 그들은 순종하며 자신이 받은 것, 오직 받은 것만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기독교인들의 사후 상태는 모든 철학자와 성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의 운명이 사망 시에 변경될 수 없게 정해져 영원히 행복하거나 영원히 비참하게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영원히 정죄 받고, 그가 받을 형벌에는 감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의 고통은 경감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할 가망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정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경전에 있는 증언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모든 죄와 신성모독은 용서 받을 수 있으나 성신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비록 [성신을] 모독하는 죄는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지만, 다음 세상에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마태복음 12:31~32; 마가복음 3:28~29 참조)

“베드로도 구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베드로전서 3:19, 20) 여기서 우리는 구주께서 노아 시대부터 옥에 갇혔던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될 운명이라고 가르쳤을까요? 분명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답변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영의 세계에서 구주께서는 의로운 영들을 모으셔서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교리와 성약 138:30)

자를 자유롭게 하고.’(누가복음 4:18)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이사야 42:7)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옥에서 건져 내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위대하신 여호와와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혹은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욥기 38:7)를 부르기 전에, 구원의 계획과 지구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분과 더불어 하나의 영원한 ‘오늘’로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 홍수 이전의 죄악(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 인간과 관련된 악의 깊이, 인간의 장단점, 그들의 권능과 영광, 배도, 범죄, 의로움과 사악함 등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에 대해 알고 계셨으며, 구원의 계획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국가의 상태와 그들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각기 다른 상황과 하나님 왕국의 율

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그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⁹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완전히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자비에 대해 가진 견해는 지각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정통과 목사들은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부르짖는 개종을 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구원에 대한 일체의 소망도 없이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한한 세월을 보내야 하며, 이 일이 결코, 결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고통은 사소한 일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의 구두 끈을 끊거나, 외투를 찢거나, 또는 살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 인간이 영원한 저주를 받거나 구원 받을 수 없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종교를 배척하고 사악하기가 피차 다를 바 없는 두 사람이 동시에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행히 기도해 주는 사람의 방문을 받아 죽기 몇 분 전에 마음을 돌이켰으며,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세 사람 즉, 재봉사와 제화공과 양철공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양철공은 냄비의 손잡이를 땀질할 일이 있었고, 재봉사는 급히 외투의 단추 구멍을 만들어야 했으며, 제화공은 어떤 사람의 장화를 기워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 시간 안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방해받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반면 먼저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다른 사람은 영원한 저주, 변경될 수 없는 비참함, 그리고 일말의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장화를 수선하고, 외투의 단추 구멍을 만들거나, 또는 소스 냄비의 손잡이를 땀질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계획은 불공평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은 미혹시키는 내용이 아니며,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일반 상식과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여운 표정을 보이실 것이고, 천사들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며, 덕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모두 몸을 움츠릴 것입니다.

“인간의 법도 그 업적과 행위에 따라 상벌을 주도록 제정되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인간보다 더 부조리하고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현명하신 입법자이시며, 그분의 율법은 더욱 정당하고, 그분의 규율은 더욱 공평하며, 그분의 결정은 인간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인간이 범법자를 법에 따라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엘마서 5:15 참조) 모든 이교도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한 생각이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정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당한 생각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로마서 10:14~15 참조)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파상 상충되는 의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간증을 부인하였다 하여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듯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보내심’을 입은 자로부터 전파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며,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⁰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과, 요구하는 바에 불순종했을 때 오게 되는 결과 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정죄를 받게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만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성역을 베푸는 영원한 신권의 중재를 통하여, 그리고 위대하신 여호와와의 현명한 경륜에 의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이 [영원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구주의 방문을 받아 옥에서 복음을 들은 것처럼, 이사가야 언급한 자들(이사야 24:21~22 참조)도 신권의 중재를 통해 같은 원리로 옥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필요 요건에 부합하도록 해 주기 위해 살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았으며, 그렇게 하

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그들은 물론 침례를 받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 바울은 이 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 …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빨리 성취되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말한 일들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면서 옛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무와 특권을 보여 주셨으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아 후기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한 오바다의 말을 성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오바다 1:21 참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성서의 내용과 일치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며, 인류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의와 원리, 공의와 진리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말씀으로 이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3, 6)”¹¹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유의하면서, 401~403쪽을 복습한다. 이 교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404~407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어떤 면에서 이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주는가? 이 가르침은 죽은 자를 위한 구원과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가?

- 404~405쪽 및 407~408쪽에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읽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가?
- 조셉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의무와 특권”이라고 말했다.(409쪽) 이 일은 어떤 면에서 의무가 되는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그것이 특권이라고 느꼈는가? 죽은 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는가? 그것은 어떻게 그분의 자비를 보여 주는가? 본 장을 읽고 난 후, 여러분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관련 성구: 이사야 49:8~9; 61:1~3; 요한복음 5:25; 교리와 성약 138:11~37

주

1.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 manuscript, book 4, 5~6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Alvin Smith,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에서 인용, 1844~1845 manuscript, book 4, 4쪽, 교회 기록 보관소.
3. 윌리엄 스미스, 이 시 브릭스와 제이 더블류 피터슨이 행한 인터뷰, 1893년 10월 혹은 11월, *Zion’s Ensign*(현재는 Community of Christ라 불리는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출판한 정기 간행물)에 최초로 게재됨; *Deseret Evening News*에 다시 게재됨, 1894년 1월 20일, 2쪽.
4. Simon Baker, 1840년 8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설교한 내용을 보고함;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40년 8월 15일. *History of the Church*, 4:231 또한 참조.
5. Joseph Smith Sr, Lucy Mack Smith가 인용함,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5년 원고, 296, 301쪽, 교회 기록 보관소.
6. *History of the Church*, 4:595~596; 현대화된 구두법; “Baptism for the Dead”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2년 4월 15일, 759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7. *History of the Church*, 5:401; 1843년 5월 21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8. 조셉 스미스가 삼촌인 사일러스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3년 9월 2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5년 원고, 228~229쪽, 교회 기록 보관소.
9. *History of the Church*, 4:596~597; 첫째 단락에 있는 첫째 괄호 안의 말씀이 원문에 있음; 철자 및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Baptism for the Dead”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설, 1842년 4월 15일, 759~760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1918년 10월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받은 계시는 구주께서 영의 세계에 있는 동안 의로운 영들을 방문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갈 사자들을 지명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음. (교리와 성약 138:18~23, 28~32 참조)

10. *History of the Church*, 4:597~598;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Baptism for the Dead"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실, 1842년 4월 15일, 760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11. *History of the Church*, 4:598~599; 첫째 단락에 있는 둘째 괄호 안의 말씀이 원문에 있음; 현대화된 철자법 및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Baptism for the Dead"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실, 1842년 4월 15일, 760~761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